

# 전주매일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음 11월 1일) 제16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 현대사, 뉴라이트 주장 거의 반영

## “탄핵안 오늘까지”

야3당, 공동 마련키로

공개된 현장 검토본에는

역대 정부 관련 서술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상  
긍정적인 내용 늘어나

집필진 31명 명단도 공개

현대사 집필자들 중  
역사전공자들 한명도 없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결국 공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검토본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있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소주제로 구성해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 표현했다.

역대 정부와 관련한 서술은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긍정 내용이 늘어났다.



“국정교과서 강행 안될말”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8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을 못 읽는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강행을 규탄한다”면서 “전북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한 학교의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대부분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역사적 사료와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도 구체적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기술했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대 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의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중남 육군사관

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현장 검토본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 다음달 23일까지 4주간 공개된다.

웹페이지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접수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본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며 “현장 검토본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9일까지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탄핵안 표결 시점 역시 이틀수룩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3당이 합의했다.

박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야3당 단일안 형태로 내일 중 마무리해 (추후 절차를 밟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며 “(탄핵안 의결)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수석 간에 말했고 원내대표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29일 중으로 야3당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탄핵안 의결 시점이 2일이나 9일이나가 관건인데 야3당은 가능한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도부와 새누리당 여러 의원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우리들로서는 빠른 시일 내 추진으로 협조했다”고 이르면 시일 내 탄핵안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수석은 “3당 소수안 자체가 거리가 멀지 않다.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망라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내용에 합의하고 적어도 12월9일 이내에 (탄핵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은 최순실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해선 “(추천) 법정시일이 내일까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 조희현 신임 전북경찰청장 내정

조희현(53·경대 27기) 경북 지방경찰청장이 신임 전북 지방경찰청장으로 28일 내정됐다.

이날 경찰청은 조 청장은 전북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조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 27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북 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대구 북부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 2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현재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인사에 따라 충남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 새만금 계화간척지 토양, 염분농도 낮아졌다 영농 기반조성 완료되면 사료작물 재배 가능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계화간척지 일부지역 염분농도가 0.2%이하로 낮아져 영농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사료작물이나 경제작물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지 농업용지 면적은 8,570ha이며, 그 중에서 계화간척지 1,150ha를 대상으로 토양 염분농도를 조사했다.

2008년 조사지역에서 염분농도가 0.2%이하 지역은 101ha(10%)였으나, 현재 염분농도 0.2% 이하 지역은

943ha(82%)로 염분농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척지의 염분농도는 간척연대와 축전화 축전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수위 변동과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염분은 표층뿐 아니라 지하층에 있는 것도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토양 중 수분이 증발해 아래층 염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토양 표면으로 올라와 작물에 해를 준다.

간척초기에는 제염(염분 제거)에 효과적인 갈대, 나문재, 통통마디 등의 자생 염생식물을 재배하고, 염분농도가 0.2% 이상의 지역에서는 유기물 공급에 좋은 자운영, 유채 등을 재배하면 염분농도를 낮추면서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염분농도가 0.2% 이하인 중염도 토양에서는 국화, 석류, 무화과, 시금치 등 내염성 및 저항성 사료작물과 경관작물을 재배한다.

아울러 염도농도가 0.1% 이하인

저염도 토양에서는 감자, 옥수수, 상추, 양파, 딸기, 파프리카 등 경제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부안군 계화면 간척지에서 새만금 농업용지의 본격적 개발에 맞춰 간척지 고도이용을 위한 토양 제염 및 재염화 억제, 토양 개량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척지 발작물 재배를 위한 내염성 작물선발과 재배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염생식

물 소득 지원과 연구와 작물재배가 간척지 환경에 미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새만금 간척지의 염분농도가 낮은 지역에서 감자, 옥수수 등의 작물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만금 간척지의 안정적인 작물재배에 필요한 효율적인 제염법 및 재염화 방지 기술개발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고마제 찜질방 12월 1일(금) OPEN

# "고마제 찜질방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수면합분 : 오후 10시까지 입장가능
- 입장료 주간 : 8,000원
- 야간 : 13,000원
-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고마제 찜질방  
**(주)알랜드** 부동산토탈서비스  
www.fland.tel

## 고마제 찜질방

부안군 동진면 장동리 591-6  
Tel : 584-7100

